전도서 3주차 : 때와 영원

본문 전도서 3:1-15 · 전도서: 숨결 같은 인생을 기쁨으로 사는 법

오늘의 한마디 · 1단계

“모든 것은 _____에 _____.”

I. 여는 비유 — 퍼즐 조각과 자수의 뒷면

조각 하나만 보면 알 수 없지만, 상자 뚜껑에는 완성된 ① _____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수의 ② _____만 보고, 하나님은 앞면도 보고 계십니다.

II. 다 때가 있다 (3:1-8)

A. 3:1 “범사에 ③ _____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B. ‘때’ = 히브리어 ④ _____ :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꼭 일어나야 할 제때

C. 2-8절 ‘때’ 28번 = ⑤ _____의 짝 → 양끝으로 ⑥ _____를 말한다

III. 때와 영원 사이 (3:9-11)

A.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름답다’ = 히브리어 ⑦ _____ : 제자리에 ‘꼭 맞다’

B. “또 사람들에게는 ⑧ _____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C. “그러나 … 일의 ⑨ _____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전 3:11)

IV. 두 번째 기쁨 (3:12-13)

A. “… 기뻐하며 ⑩ _____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B.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⑪ _____

C. 지난주 ‘하나님의 손에서’ → 이번 주 ‘선물’ : 기쁨이 이웃에게 흘러간다

V.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3:14-15)

A. 3:14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⑫ _____하게 하려 하심인 줄”

전도서의 첫 ‘경외’ → 마지막 결론 12:13에서 다시 만난다

B. 3:15 “하나님은 이미 ⑬ _____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VI. 강의 중 생각해 볼 질문

강의 중 잠시 멈추는 자리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떠오르는 대로 편하게 적어 보세요.

1) 지금 내 삶에서 ‘이제는 될 때가 됐는데’ 하고 기다리는 것은?

2) 지금 나는 어떤 짝의, 어느 쪽에 서 있나요?

3) 다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오늘 내 손에 쥐어진 ‘선물’은 무엇인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 3:1)

VII. 한 주 묵상 — 다음 본문 3:16–4:16

수업 다음날부터 주일을 빼고 다섯 날, 하루 10분씩 읽습니다.
더딘 일, 기다리는 일을 만날 때마다 한 번씩 — “이 조각은 어떤 그림의 일부일까?”

요일	본문	묵상 질문	나의 한 줄
목	3:16–17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는?	
금	3:18–22	사람과 짐승의 끝이 같다는 말 앞에서, 세 번째 ‘기쁨’은 무엇을 말하나?	
토	4:1–3	위로자가 없는 사람들을 보며 내 마음은?	
월	4:4–8	내 수고는 무엇에서 시작되고 있나?	
화	4:9–16	내 삶의 ‘세 겹 줄’은 누구인가?	

VIII. 깊이 읽기 3단계

더 파고들고 싶은 분을 위한 자료입니다. 읽지 않으셔도 강의를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A. ‘때’의 열네 쌍 — 3:2–8을 펴고 빈칸에 짝을 채워 보세요

구절	첫째 짝	둘째 짝
3:2	날 때 ↔ _____	심을 때 ↔ _____
3:3	죽일 때 ↔ _____	헐 때 ↔ _____
3:4	울 때 ↔ _____	슬퍼할 때 ↔ _____
3:5	돌을 던져 버릴 때 ↔ _____	안을 때 ↔ _____
3:6	찾을 때 ↔ _____	지킬 때 ↔ _____
3:7	찢을 때 ↔ _____	잠잠할 때 ↔ _____
3:8	사랑할 때 ↔ _____	전쟁할 때 ↔ _____

지금 내가 서 있는 쪽에 동그라미를 쳐 보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시 31:15)

B. ‘올람’(영원)의 네 가지 번역 — 3:11

번역	옮긴 말	강조점
개역·개역개정, NIV, ESV	영원 (eternity)	시간을 넘어선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
킹제임스역 (KJV)	세상 (the world)	세상 전체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새번역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지금을 넘어 앞뒤를 내다보는 마음
일부 학자의 제안	감추어짐, 모름	‘숨기다’와 같은 자음의 단어 — 하나님이 모름을 두셨다

나에게 가장 와닿는 번역은? 그 이유는?

C. 그래서 우리는?

갈망은 주셨지만, 다 아는 눈은 주지 않으셨다.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D. 더 읽을 책 (영문)

Choon-Leong Seow, *Ecclesiastes*, Anchor Bible (1997)
Michael V. Fox,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Up* (1999)
Craig G. Bartholomew, *Ecclesiastes*, BCOTWP (2009)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전 12:13)